

치매공공후견사업 지원 사례

후견 사례 1

지역사회 거주 치매어르신

임대주택에 홀로 사시는 치매어르신입니다.

매달 어르신의 개인 통장으로 기초생활수급비 및 기초연금 등의 수익이 들어오나 금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, 또한 폐렴 등의 지병이 있어 정기적 병원 검진을 받아야하나 진료 예약 등의 절차를 혼자 진행하기가 어려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후견인 선임을 통해 어르신의 개인 통장으로 들어오는 수급비 등의 예금자산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고, 매달 정기적 병원 검진을 예약해 적절한 진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
후견 사례 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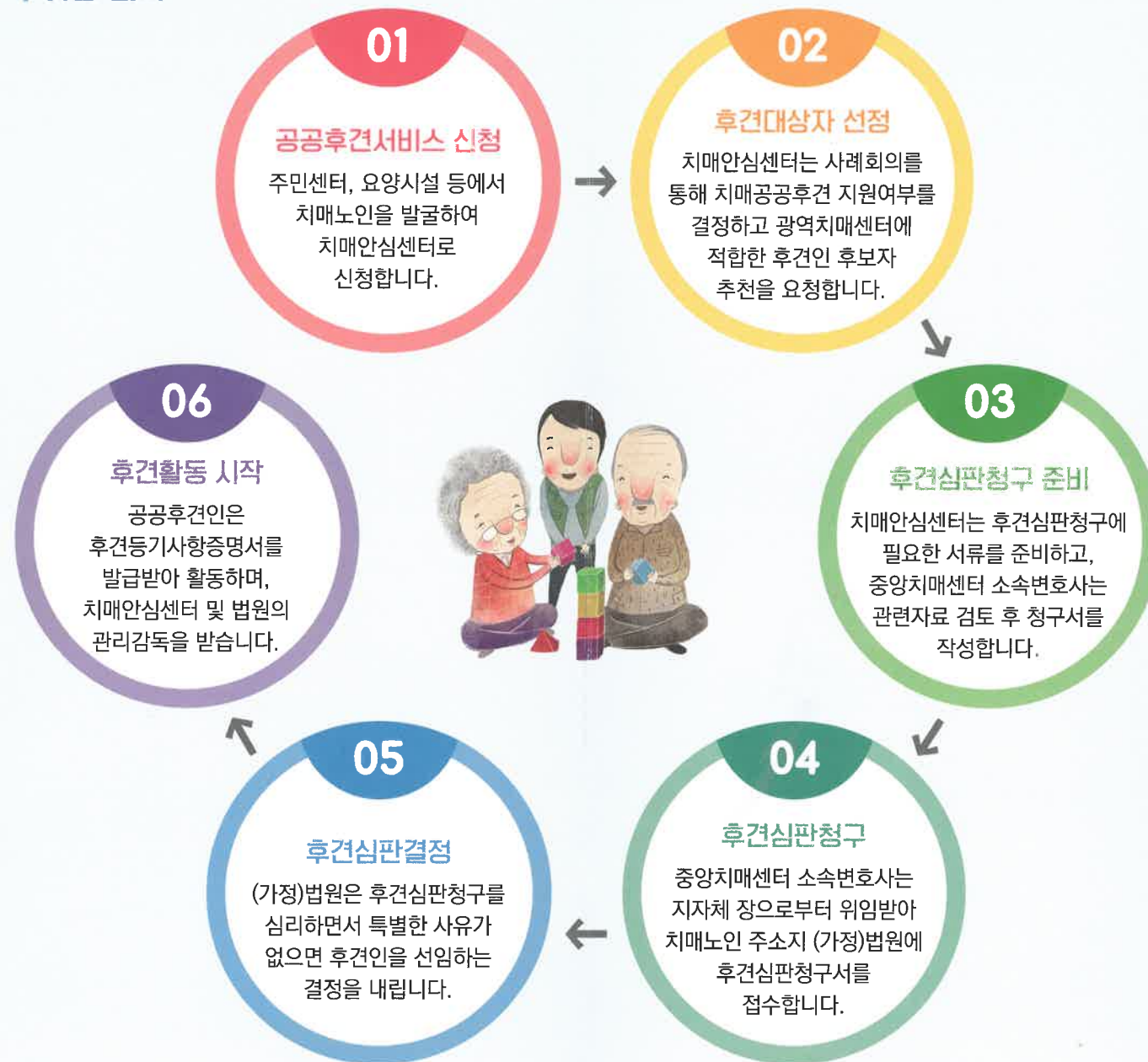
요양시설 입소 치매어르신

요양시설에 입소해서 지내시는 치매어르신입니다.

시설에서 치매어르신에게 건강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, 정기적인 시설입소비용 납부 등 지출관리에 대해 어르신 혼자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.

후견인 선임을 통해 입소 시설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각종서비스를 요청하고, 기본적인 재산관리를 통해 시설비용 납부와 필요한 일상 용품 구입 등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.

치매공공후견서비스 이용 절차



공공후견인 Q&A

Q1 공공후견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?

법원의 결정에 따라 업무범위가 다르나, 보통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.

- 통장 등 재산관리
- 관공서 등 서류 발급
-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
- 병원 진료,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(수술 및 시술 등 건강에 영향을 주는 침습적 의료행위 제외)
- 물건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

Q2 누가 공공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?

• 공공후견인 자격

미성년자, 파산선고 받은 자, 형(刑) 집행 중인 자 등 민법 상 결격사유(민법 제937조 참조)가 없고, 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성인이라면 누구나 공공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.

• 공공후견인 선정 절차

공공후견인 모집 및 관리는 광역치매센터에서 담당하며, 세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.

- 1) 시도 광역치매센터에 지역 내 후견인 후보자 모집 및 선발
- 2) 치매공공후견인 양성교육 수료 후 위촉장 수여
- 3) 치매안심센터에서 요청시, 후견대상자와 적합한 후견인 후보자 추천
- 4) 치매안심센터는 후견인 선정회의를 통해 후견인 결정
- 5) 후견심판청구 절차 진행